

조선인민군창건 81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레식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과 군대,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참석하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81돐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레식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인민군장병들과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81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군악단이 《발걸음》, 《조선인민군가》를 주악하며 전투적이며 기백에 넘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조선인민군 레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충정을 맹세하는 첫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0여성상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역군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어온 영광의 력사이며 적들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도발책동을 걸을마다 짓부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톤튼히 보위해온 승리와 위훈의 력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백두밀림에서 우리 혁명무력을 칭찬하시고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세기적인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자작적군사로선과 《일당백》구호를 제시하시여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건군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최정예 전투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혁명활동의 거룩한 첫 자욱을 인민군대에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핵무기를 틀어쥔 최강의 군대로 억세게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령영생법전과 핵 및 우주강국의 법적 담보를 마련해주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우리나라를 태양의 조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며 미제의 끊임없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



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무적의 총대로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불라는 결의를 펴력하였다.

이어 진행된 결의연설에서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몸소 어뢰정에 오르시여 파도세찬 항해길도 해병들과 함께 헤치시며 우리식의 해군전법도 밝혀주시고 해군무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끝없는 토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해군은 무적의 함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초대형항공모함과 핵동력잠수함파워로 우리를 놀래워 보려고 하지만 최첨단타격수단들로 무장

된 우리 혁명무력앞에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주문진앞바다에 수장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영웅적조선인민군 해군이 있는 한 조국의 바다는 영원한 백두산대국의 바다, 태양민족의 바다로 설레일것이다.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채취와 숨결이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항공군을 나의 비행대라고 하시면서 바람세찬 비행훈련장에 나오시여 백승의 비행전법도 가르쳐주시며 결음결음 순간아이를 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은 무적의 힘과 기적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우리

의 날개우에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렌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할 억척불변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적들의 운명에 종지부를 짹게 될 최후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우리 일당백비행대는 출격명령만 내리면 돌아올 연유대신 핵폭탄들을 만적재하고 적들의 운명에 비호같이 날아들어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겠다.

김락겸 전략로케트군사령관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핵미싸이들을 부대들에 실전배비하도록 하시고 지난 3월에는 원쑤들의 머리우에 핵보복의 불소나기를 펴부

을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해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마다에는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지금 전략로케트군장병들의 손은 발사단추위에 놓여있다.

우리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며 핵무력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무력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미제는 진짜 핵전쟁맛, 진짜불벼락맛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도록 느끼게 될 것이며 미제의 앞잡이들도 무서운 핵참화의 된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다.

례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어 조선인민군창건 81돐경축 분렬행진이 진행되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이 울려퍼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군기종대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하였다.

군기들을 대오앞에 휘날리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대원들이 장중한 취주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하게 행진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석단앞을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풍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광명한 미래,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백두산대국의 기상이란듯 우리의 미더운 항공기들이 세찬 동음을 울리며 금수산태양궁전상공에서 시위비행을 하였다.

례식은 《김정은장군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과 함창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군중이 터쳐울리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으로 하여 광장은 세차게 끊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과 환희에 훌싸여있는 군중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정의의 반미대결전은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전입니다

지금 온 행성의 시선은 조미대결전에 쏠려있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타파으로 하여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기의 결전이다.

이 숨막히는 최후의 전면대결전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승자는 누구이며 패자는 누가 될것인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이 전쟁(아직 성공이 끝나지 않았지만)에서 우리 가, 조선이 이긴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벌리는 반미전면대결전,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이 바로 사랑과 믿음의 대전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불과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마당이다. 여기에서 무장 장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과 대포를 푸 사람이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군대와 인민이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싸움에 힘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조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가진 최상의 무기, 사랑과 믿음의 무기가 있다.

예로부터 사랑은 겸을 이긴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한 철학자는 『사랑이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고 하였고, 역사가들도 『인간사회나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난 3월초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하시던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적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끼리풀보』,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의 개시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기던 그 시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원수님께서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방어대를 또 다시 시찰하시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두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장제도와 무도가 어떤 곳인가.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있는 섬들이고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대연평도가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곳이다.

언제 적의 포탄이 날아올리 알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섬방어대들을 지난 해에 이어 다시 시찰하신 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원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작은 발동선을 타고 파도가 솟구치는 날바다를 헤치며 섬방어대의 군인들을 찾아가시던 그날의 원수님의 모습은 밀려드는 전쟁의 불구름을 자신의 한몸으로 다 막으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 지켜 가렬 척결한 반미대결전의 최전선, 최진두에서 세계는 선군령장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장제도방어대 군인들이 보고싶어 다시 왔는데 모두들 건강한 몸으로 잘 있었는가로 다정히 물어주시고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으시었을 때 품에 애주시었던 정향령 어린이도 다시 만나주시었다. 항명이의 첫들이 어제였다는 것을 미리 알고 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안겨 주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자애로운 그 모습.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는 선군령장의 멀티의 선언이 적진을 흔들며 산케하며 죄령찌령 울려펴진 그날 바로 그곳 섬방어대

에서는 이런 눈물없이 볼수 없는 감동의 화폭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장면들을 TV로 보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다며 무릎을 쳤다. 군대와 인민을 저토록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시는 경에 원수님께서 계서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까지 돋과 화약내밖에 모르는 적들이 우릴 어떻게 당해내랴 하는 자신만만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감에서였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벌리는 반미전면

비전향장기수 홍명기

『로인님은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가지요. 지금이야 북쪽밖에 갈데가 있습니다.』

『북에는 왜 갑니까?』

『군대 동무들과 같이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지요.』

『그래, 이 란리통에 김일성장군은 왜 찾아갑니까?』

『왜 찾아가야 나니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구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게 아니겠소.』

... 이윽고 멀어져가는 달구지행렬을 지켜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보시오, 우리 인민은 다 이렇소. 저런 인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오라고 드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세계에서 첫번째로 인민을 사랑하시는 분.

적대국가의 사람들도 한번 만나뵈으면 순간에 매혹되고 감탄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그이는 인민 사랑세력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차위적인 제3차 핵시험을 걸고들면서 『제3차 핵시험』을 험하게 이겼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벌리는 정의의 반미전면대결전도 다름아닌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정치의 연장이고 혁신이라고 본다.

나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인간세상에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이다.

나의 고향은 저 남쪽땅 부여, 백마강 전설이 전해주는 구슬픈 이야기와 함께 나의 어린 시절도 훌려갔다. 배고픔과 배움의 주림에 눈물 마를새 없었던 내 인생에서 국적전환이 일어난 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였다. 남진해온 인민군대에 의해 고향이 해방되고 민족개혁의 조치들이 헤치는 것을 보면

서 나도 이런 인민의 세상을 지켜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하여 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하여 얼마후 남으로

행군해 가던 중 뜻밖에도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를 맞게 되었다. 아직 정식 부대 배치도 받지 못했던 때라 사실 그 정황에서 우리가 집에 다시 돌아간다고 누가 탓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럴 수 없었다. 운명적인 선택의 길에서 의용군병사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북행길에 오를 것을 결심하였다. 누구나 인생길에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내가 찾은 인생의 진리는 믿음은 꼭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가 김일성장군님과 따라가면 이길고 믿었기에 전승의 날을 맞을 수 있었고

바로 그 길을 갔기에 내 인생에 그처럼 열망하던 배움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었다. 1960년 가을에는 그처럼 뵙고 싶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최상의 영광도 지닐 수 있었다.

적구에서 37년간의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나는 언제나 그날에 뵙았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로면서 그이가 계시기에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양의 믿음을 안고 끝까지 싸워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었다.

우리가 믿음을 안고 옥중에서도 보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며 싸웠다면 조국은 전사들의 그 신념, 의지를 초석처럼 굳게 믿었다.

오랜 갑우살이에 세인의 관심밖으로 밀려났던 우리들이 승리자로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음을 바로 혁명전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가 지켜보는 오늘의 전면대결전

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

1년 전 뜻깊은 태양절에 김일성광장을 평화롭게 하는 원수님의 혁신적인 첫 연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포나 로켓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한 믿음,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겠는가.

지난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원수님의 연설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한없는 믿음으로 일관된 눈물없이 들을 수 있는 감동깊은 연설이었다. 특히 그이께서 설사 엄중한 파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사랑이 있다면 그 향기를 귀중히 여겨 포섭하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연설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걱정과 눈물을 삼키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제재』와 핵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수세에 물리고 죽기우는 것은 저들 자신이다.

선군조선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드센 타격과 레이온 공세에 혼비백산하고 파멸의 깊은 함정에 빠져 맡고 대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날과 시간에 허우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다.

그것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차례지고 있는 응당하며 통쾌한 징벌이다.

반미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인이다.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제재』 소동에 대처하여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켰을 때에 벌써 현명한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미국과의 풋仗에서 끝내는 이길것이라고 나다보았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인구수에 있어서 13배, 령도넓이에 있어서 82배나 되며 경제 규모와 핵무기수에 있어서 월드컵 더 우세한 미국을 공화국이 단숨에 꿀복시키고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으로 밟아올라 승리의 아침은 이제 멀지 않았다.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흘러가는 정의의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우리 공화국에 있다.

* * *

이 땅에 반미대결전의 첫 포성을 울려 침략의 원흉인 미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전승의 빛나는 축조를 쏘아올리신 분은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미국과의 레이온 공세에 혼비백산하고 파멸의 깊은 함정에 빠져 맡고 대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날과 시간에 허우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다.

그것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차례지고 있는 응당하며 통쾌한 징벌이다.

반미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인이다.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제재』 소동에 대처하여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켰을 때에 벌써 현명한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미국과의 풋仗에서 끝내는 이길것이라고 나다보았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인구수에 있어서 13배, 령도넓이에 있어서 82배나 되며 경제 규모와 핵무기수에 있어서 월드컵 더 우세한 미국을 공화국이 단숨에 꿀복시키고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으로 밟아올라 승리의 아침은 이제 멀지 않았다.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흘러가는 정의의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우리 공화국에 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으로 밟아올라 승리의 아침은 이제 멀지 않았다.

그것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차례지고 있는 응당하며 통쾌한 징벌이다.

반미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인이다.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제재』 소동에 대처하여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켰을 때에 벌써 현명한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미국과의 풋仗에서 끝내는 이길것이라고 나다보았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인구수에 있어서 13배, 령도넓이에 있어서 82배나 되며 경제 규모와 핵무기수에 있어서 월드컵 더 우세한 미국을 공화국이 단숨에 꿀복시키고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으로 밟아올라 승리의 아침은 이제 멀지 않았다.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흘러가는 정의의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우리 공화국에 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경에 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크나큰 믿음으로 밟아올라 승리의 아침은 이제 멀지 않았다.

그것은 불을 지른자들에게 차례되고 있는 응당하며 통쾌한 징벌이다.

반미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 것인이다.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제재』 소동에 대처하여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켰을 때에 벌써 현명한 정세분석가들은 조선이 미국과의 풋仗에서 끝내는 이길것이라고 나다보았다. 어느 한 재미동포는 인구수에 있어서 13배, 령도넓이에 있어서 82배나 되며 경제 규모와 핵무기수에 있어서 월드컵 더 우세한 미국을 공화국이 단숨에 꿀복시키고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승리의 환희가 바야흐로 눈앞에 그려지는 이 시각 나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당신만 있으면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가 원쑤미체를 요정벌 낙오밀에 만단의 태세를 갖게 불러본다.



민족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

명장이 있어 군인이 있고 강국이 있다. 조선인민군의 80여 성상의 자랑스러운 행로가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며 강철의 형장이신 김일성주석을 모시여 한세대에 두 척국주의 렬강을 타승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자주권을 수호했다. 수령님의 령도를 떠나서 유격전으로 일제의 100만대 군파 쟁이에 진도, 청소년 정규무력으로 세계를 흔들며 『최강』을 떠 드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핵세력을 물리치고 20세기 군사적 기적을 창조한 전승신화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백두밀림과 만주평야에서 풍찬로속하시며 항일대전을 승리에 이끄시여 식민지 민족해방전쟁에서 유격전의 본보기를 창조하였고 반미성전의 나날 5만 1200여 리의 전선길을 걸으시며 탁월한 전략술과 전법, 비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시여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것부서버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이다.

민족의 운명이고 자주이고 존엄이라는 애국의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군력강화에 최선을 기울이신 장군님께서는 1211고지, 지혜, 대덕, 대덕, 351고지를 비롯하여 최전연 최전방의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계시여

외진 섬방어대로부터 산간 오지의 경제초소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선의 전역을 눈보라 강행군, 삼복월 강행군, 철야강행군, 일행 천리 강행군으로 종횡무진하시며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셨다. 선군장정의 날과 날은 쪽잠과 째기밥, 애전리파와 같은 빨찌산, 애전식생활과 일파로 이어졌다. 그 날, 그 길에는 온몸을 얼구는 빙설천지의 강추위를 무릅쓰고 걸으셨다.

세상에 령도자는 많아도 우리 경에 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을 제일로看重하는 것은 드물다. 원수님의 믿음으로는 군사적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과 책임을

계절의 흐름에 살려
례사롭게 찾아온 봄이라면
이다지도 생각이 깊어지라
이해의 봄은
류달리도 눈굽이 젖어드는 봄

이 땅의 봄을 영영 없애버리려
시시각각 밀려오는
전쟁의 불구름을 쳐갈기며
이 땅에 인민의 가슴에
화창하게 만발한 봄이여

소중한 이 봄 가슴에 안고
내 마음 달려가노라
우리의 첫 무장대오가 탄생한
80여년 전
사연 깊은 4월의 그 봄날로

총대의 퇴성으로 겨레를 불러
일으키시며
항일의 대오앞에 나서신 수령님
그 봄에 인민은
빼앗긴 조국의 봄을 찾아주실
위대한 영웅을 보았다

차디찬 수난의 얼음만이
모질게도 얼어붙었던
이 나라 눈물의 봄이
총대를 틀어친 봄으로 된
오, 혁사의 4.25!

그날부터 봄의 정기
삼천리강산에 차넘쳤어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비탄에 몸부림치던 그 인민이
새로운 신심을 갖다듬으며
혁사의 새봄맞이에 멀쳐나섰
거니

보천보의 해불로 암제를 불

장시

승리의 봄은 영원하리라

김태룡

원수님 서슴없이 나서신 길이
였거니

원수님

최전방에 계시며
쏟아져내리는 전쟁의 불소나기

한몸으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어이 이 봄날이

우리의 웃음으로 차넘칠수

있으라

남녘의 겨여여 아는가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삼천리에 펼쳐시던 봄

그 봄을 기어이 남녘에 꽂피우

시려

원수님 가신 길이였음을

언제나 마음속에

북녘의 인민들과 꽂같이

남녘의 동포들

해외의 동포들을 앙고사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경에 하는 원수님

밀려오는 핵구름 밀어내시며

북녘만이 아닌 그대들을 지켜

주려

결연히 나서신 길이였음을

정녕 다 아는가

겨레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해방의 봄 안아오시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선군조선의 봄을 빛내이신

승리의 봄으로 영원하리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오늘은 그 사랑으로
반미대결 전의 승리를
이 봄날에 안아오시며
더 좋아질 민민의 래일
더 강대해질 통일 조선의 미래를
봄 하늘에 펼쳐 주신 우리의
원수님

세계의 이목이 쓸리면
3월의 그 높은 연단에 서서여
경제건설과 무력 견실병진로선
그 애국애족의 로선을
장엄한 봄우리로 드높이 울려
주셨으니

이해의 봄은 더욱 화창하여라
이해의 봄은 더욱 따사로워라
강력한 핵무력 우에
이 땅의 부강번영으로
인민의 행복한 삶으로 만발할
봄이여

이제 우리의 원수님
수령님과 장군님
그 한평생의 뜻을 받들어
그 어떤 불구름도 태우지
못할

내 나라의 강대한 이 봄
통일강국의 봄으로 펼쳐가시리

오, 이 땅에 봄을 주시고 빛내여
주신
대원수님들 태양으로 영생하
시고
우리의 원수님 계시여
조선의 봄은 천만년 세월 무궁
도록
승리의 봄으로 영원하리라

세계평권을 향하여

우측면돌파에 의한 돌입,
종장거리차별기로 련속 득점하여 중국 홍콩팀을 5:0,
일본팀을 3:1로, 몽골팀을 8:0으로 암도적으로 물리치고 제1위를 정취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시는 망국노의 생활을 할 수 없습 니다

총이 없어 굴욕을 당해야 했던 쓰라린 수치의 혁사를

사랑하는 조국의 운명을 지켜

인민의 안녕을 지켜

세월의 눈비도 달게 여기시며

장군님 이어오신 선군장정의 길

몇천 몇만리더나

그 길에서 우리의 위성들이

찬연한 빛을 뿌리며

회 참가자격획득을 위한 경기를 겸한것으로 하여 이번 청소년력기 선수권대회는 혁기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의 나어린 혁기선수들은 7개의 금메달과 4개의 은메달을 따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하였다.

이역의 경기장에 람홍색 공화국기발이 련속 오르는 속에 여러 나라의 감독들이 찾아와 『조선선수들이 경기를 정말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공화국의 체육인들이 올해 들어와 국제경기들에서 련속 커다란 성과를 이루하고 있는 것은 온 나라에 세차게 일고 있는 체육열풍과 떼여놓고 이야기 할수 없다.

민족의 어버이 이 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경애와 꾸밈없는 존경심과 현 낙국을 뿐고 승리에로 확신 있게 나아가는 고국인민들의 필승의 기상을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내가 이번 평양방문에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화국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평양시내 곳곳에서 살림집건설이 한창이고 시민들이 떨쳐나서 도로주변에 새로 잔디와 꽃나무를 심는 것

을 심는가 물어보았다. 그

러자 그들은 미국놈들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우리

를 집어삼키려고 제아무리 날뛰어도 헐릴한 선군장장을 모

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 것이다.

기자: 민족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김원백: 고국방문기간 가장 인상깊은 것은 전쟁 전야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평화적

경성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김원백: 고국방문기간 가장 인상깊은 것은 전쟁 전야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평화적

경성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 앞으로 조국통일파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선생이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김원백: 내가 고국의 산야를 푸르게 할 결심을 품고 수종이 좋은 나무묘목들을

들여와 심은지도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 묘목들이 지금은 수자를 접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고국의

방방곡곡에 퍼졌다.

나는 앞으로도 푸른 통일조국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나의 여생을 바치겠다.

공화국은 반드시 이긴다

* 재 카나다 동포인 푸른 통일조국 가꾸기
운동 대표 김원백 선생과 나눈 이야기 *

얼마전 조국을 방문한 재 카나다동포인 푸른 통일조국가꾸기운동대표 김원백선생이 본사기자와 만나 이야

기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김원백동포를 열렬히 환영한다. 뜻깊은 4월에 조국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들려주었으면 한다.

김원백: 조선반도의 정세가 최대로 긴장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였다.

기자: 민족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김원백: 고국방문기간 가장 인상깊은 것은 전쟁 전야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평화적

경성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기자: 이번 평양방문에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화국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다.

내가 이번 평양방문에서 느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양시내 곳곳에서 살림집건설이 한창이고 시민들이

떨쳐나서 도로주변에 새로 잔디와 꽃나무를 심는 것

을 볼수 있었다. 오래 전부터

중앙식물원과 중앙양묘장들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나무묘목을 생산하고 각지에 보장하는 일을 중단없이 진행하고 있다.

기자: 만국이 칼을 물고 던벼드는 이상 그대로 앉아 당할수 앉지 않는가. 공화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나가 후대들

기자: 앞으로 조국통일파

민족의 통일을 위해 선생이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김원백: 내가 고국의 산야를 푸르게 할 결심을 품고 수종이 좋은 나무묘목들을

들여와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만일 전쟁이 터지면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겠는데 왜 또 새 나무들

질좋은 체육기자재들을 더 많이

온동포, 축구선수들의 다리 보호대를 가리우는 양말 등은 나하같이 질이 높아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16차 전국체육기자재 창간품전시회에 이 공장에서 내놓았던 12종에 근 50점의 전시품들이 심사자들과 관람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2013년 아시아페스팅선수권대회에서도 공화국의 남녀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디아의 뉴델리

기자가 국가품질감독위원회를 찾았을 때 마침 접심참여에서 탁구경기가 한창이었다. 호기심이 동

여 그곳으로 향하니 탁구판을 둘러싼 사람들의 떠들썩한 응원속에 두사람이 앞서거나 뒤로나가면서 승부를 겨루고있었다.

위원회, 성, 종양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 학교들에서도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탁구제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탁구제품은 대체로 탁구장을 앞자리에 올려세운 동행한 일군은 지난 1월에 있는 위원회, 성, 종양기관으로 탁구복식경기에서 자기 기관선수들이 활약한 경기에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주고있다.

우승한 선수들의 앞가슴에 금메달이 번쩍일 때에도, 온 나라에 불어지는 대중체육열 풍의 랑만속에 배구공, 탁구공이 하늘높이 떠오를 때에

도 체육기자재생산에 바쳐가는 이들의 수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우승한 선수들과 공화국 기발을 함께 휘날려간다는 뿐만 아니라 체육강국건설의 뿌리가 될 국의 마음을 소중히 안고사는 미더운 체육기자재생산자들이다.

본사기자

</div

지금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어면서 그 막뒤에서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보수당국이 떠드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데 맞도장을 찍어 주고 그들의 북침전쟁소동을 적극 밀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반도와 가까운 해역에 2척의 핵동력초대형항공포합집단을 비밀리에 전개하였다.

남조선의 대결원자들도 한갓 주주의 가련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의 도발』에 대한 무슨 『단호한 자위적대응』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내외호전세력이 떠드는 『북도발』설은 저들의 호전적정책을 가리우며 사례의 책임을 전가하여 반공화국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지

《북도발》설의 진상

나지 않는다.

원래 남을 해치려는 강도는 항상 자기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억지개변을 주장하기가 일쑤이다.

최근 조성된 업종한 사례의 시발점은 미국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으로 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도발적인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적극 축종해 있다.

공화국의 제3차 지하핵시

험은 미국의 이런 극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

행된 자위적응조치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은 도적이지를 드는 것으로 공화국에 『도발자』의 감투를 씌우며 보다 강화된 『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업종한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전례없는 핵선제타격무력까지 동원하

를 산생시키는 도발의 진범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힘중해 주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공화국에 지속적으로 도발을 걸면서도 양대 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격으로 『북도발』설을 고창하기에 지칠 줄 모르는 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북도발』에 『대비』 한다는 구실밑에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화국의 종진군에 장애를 조성하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 암살하려는데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아무

리 『도발』이니, 『위협』

이니 하고 공화국을 걸고들

며 모략선전에 열을 털려도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저들의 침략적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평화를 위협하는 진짜도발자들

은 전면대결전에 한 사람 같아

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애발로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끊임없

는 군사적도발로 긴장격화

본사기자 주광일

기운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선동하려는 반공화국대결광란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암살책동속에서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날로 높아가

는 것은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였던 지난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멀땅에 직면한 자들의 단발마적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작가 신정모라가 『보안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동안 쓴 글들을 삭제하고 『현행법』을 따

르라는 보수당의 요구를 뿐리 치고 재판증에서도 진보적인 문필활동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것은 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거제의 마음은 결코 총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정의와 진리에 거역해나서는 자들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남조선보수당은 이것을 뚜바로 알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박철남

정의와 진리에 대한 도전

고 있다.

이에 질길한 보수당이 무시무시한 공안정국을 또다시 조성하여 진보세력,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할 살하고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총망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에 어떤 주장을 하면 평강히 단시간에 우리 사회에 퍼진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탄압기도를 폭넓으로 드러낸 것

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읽고 큰

결국 이것이 『반공』의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였던 지난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멀땅에 직면한 자들의 단발마적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작가 신정모

라가 『보안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동안 쓴 글들을 삭제하고 『현행법』을 따

르라는 보수당의 요구를 뿐리 치고 재판증에서도 진보적인 문필활동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것은 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거제의 마음은 결코 총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정의와 진리에 거역해나서는 자들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남조선보수당은 이것을 뚜바로

알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박철남

전쟁의 화근, 통일의 장애물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주장

국의 오랜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시작되었고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권리인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결의』조작을 주도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온갖 핵무기와 첨단장비를 유통하여 세계적정책으로 따른 대규모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의 화해와 단

합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의

사와 배치되며 북을 적대시

하며 호시탐탐 전쟁구실을

찾고 있다고 하면서 선포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쟁을 부르는 북

침전쟁연습과 북에 대한 제

재를 당장 중단하고 평화

전쟁연습중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

총격을 받았으며 작가로서의 심상을 지켜 복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한 것은 그 심상을 귀중히 여기고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인터넷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올린 영화감독이나 『우리 민족끼리』 흥폐지가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 조사하는 놀음을 벌리며 그 무슨 『종북세력』으로 묘사는 것은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련북통일

선제타격대상으로 정하고 일축발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비난하였다.

사상학적약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전쟁연습을 직후 부터 그를 란족하게 위반하며 조선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다량배치하고 핵전쟁의 근원인 핵군단 남조선주둔 미군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식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쟁의 화근, 통일의 장애물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선포하며 통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걸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국의 오랜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온 국민의 생존을 걸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민족분열의 주범인 미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지 않고서는,

핵전쟁의 근원인 핵군단 남조선주둔 미군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식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전쟁의 화근, 통일의 장애물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선포하며 통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걸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